

25-2 ISEP 미국 교환학생 Goucher College

생명과학과 조*주

목차

- 파견 준비
 - ISEP 지원
 - 비자
 - 항공편
- Towson, Maryland 지역 소개
- Campus life of GC
 - 기숙사
 - 교내 식당
 - 강의실과 도서관
- 마치며

파견준비- ISEP 지원

ISEP 지원 및 학교 탐색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https://www.isepstudyabroad.org>

ISEP 지원 제출을 마무리한 건 26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희망하는 학교 10곳을 1~10지망까지 선정한 리스트와 각종 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ISEP에서의 승인과 학교 배정이 끝나면, 듣고 싶은 과목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 저는 실제론 2가지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SEP을 지원하고 낮은 지망의 학교를 배정받으신 분들께, 미국의 Goucher College는 ISEP 프로그램을 통한 교환학생만 가능하고, competitive한 곳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GC가 9지망이었기에 처음엔 크게 실망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각종 혜택과 교내 시설, 파견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한 학기만 생활하는 교환학생의 입장에서선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혹여 원하는 지망의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실지라도 실망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교환학생이라는 설레는 경험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파견준비- 비자 발급 (J1)

저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비자 관련 각종 정책 도입으로 인해 비자 인터뷰가 예상시기보다 약 한 달간 지연되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비자를 발급 받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파견교에서 DS2019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해주면 온라인으로 ds 160과 비자 신청 및 각종 fee 납부를 마무리 하시고 가능한 빨리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한미국대사관 (당시 비자 인터뷰 상황이 날마다 변화했기 때문)
<https://kr.usembassy.gov/ko/visas-ko/>
2. 유튜브의 비자 인터뷰 연습 영상들 (비자 인터뷰는 토플 스피킹 20점 정도 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돌아올거란 의사만 명확히 밝히시면 무사 발급 가능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GhEFD33HoM>
3. 각종 블로그 글 및 유튜브 영상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하진 않겠습니다만, 방문 전에 대사관의 위치와 각종 절차 순서 등을 가볍게 익히시면 좋습니다!)

파견준비- 항공권

Oct 31, 2025	Download
Flight	₩2069300 ⁰⁰ (KRW)
✈ BOS ▶ ICN	
Oct 23, 2025	Download
Flight	₩1844700 ⁰⁰ (KRW)
✈ JFK ▶ ICN	
May 26, 2025	Download
Flight	₩1716000 ⁰⁰ (KRW)
✈ ICN ▶ BWI	

저는 비자 관련 각종 신청을 진행하며 항공권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구입 당시 타 항공사들과 DELTA 항공권의 가격이 비슷했는데, 기내 기외 서비스를 모두 고려해 DELTA가 훨씬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첫 구매는 ICN - BWI 왕복행으로 25년 5월 중순에 17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출국행은 SLC 경유, 귀국행은 DTW 경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뉴욕 여행일정을 잡게 되어 뉴욕의 JFK 공항에서 ICN으로 오는 대한항공(DELTA와 대한항공은 공동운항 항공사입니다) 직항 귀국편으로 변경하며 13만원가량 추가로 지불하였고, 이후 보스턴 여행 일정이 추가로 잡히게 되어 BOS 공항으로 바꾸며 21만원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비행기 값이 지출이 크긴 했지만, 서비스 등 모두 만족스러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면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기에 추천드립니다!!!

Towson, MD



BWI 공항에서 GC까지는 차로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GC가 위치한 Towson은 메릴랜드 주의 2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항구도시이자 꽤나 대도시인 Baltimore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inner harbor 등 다양한 관광지 방문이 수월합니다! 근처 대학으로는 Towson University, Baltimore에 위치한 UMBC(University of Maryland), Johns Hopkins가 있습니다.

워싱턴 DC까지는 택시로 1시간 반, 필라델피아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뉴욕까지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Campus life of GC- 기숙사

2인 1실이었고, 각 방마다 전자레인지+미니 냉장고가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냉장고는 냉장층+ 냉동층이 따로 나뉘어져있는, 중간 크기의 냉장고였습니다. 침대 상태도 너무 좋았고, 환기도 매우 잘되었으며, 각 층마다 스터디룸도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나 공부하고 싶을 때, 친구들과이랑도 같이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침대는 슈퍼싱글 사이즈였던 것 같고, 출국 전에 매트리스 방수 커버만 사갔는데, 학교에서 국제학생들에게 bedding(이불, 베개, 침대커버) 세트를 무료로 한 학기 동안 대여해줘서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기숙사 1층에 공용 세탁실이 있어 건조기, 세탁기를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모두 학생증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이용했는데 주 1회 정도 사용하고, 도착 직후와 출발 직전 이불과 각종 옷 세탁을 추가적으로 했음에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1회당 \$1.5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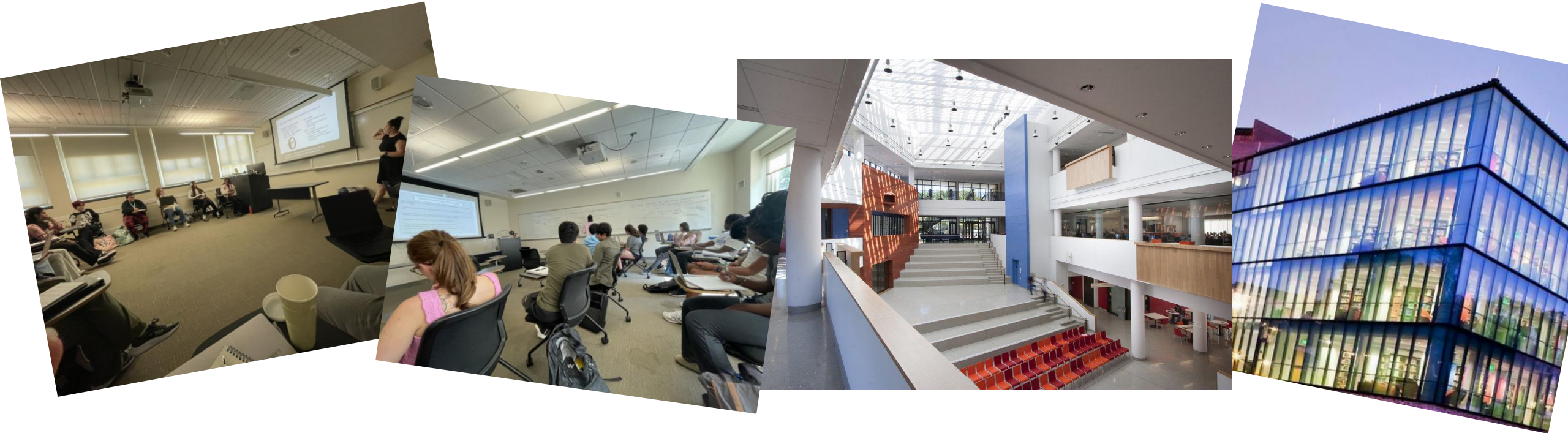
Campus life of GC- 교내식당



GC의 경우 주 21회 meal plan이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dinning dollar라는 학교의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학생증에 충전해서 받는데요, 마켓에선 치킨버거, 감자튀김, 핫도그, 스시, 라멘, 각종 과자, 아이스크림, 버블티, 카페음료,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Meal plan은 하루 5회까지 사용 가능하고 주말엔 브런치+저녁이 나오기 때문에 주 21회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Dinning dollar는 \$210 이었습니다!!!!

GC는 다른 것보다 식당이 뷔페식으로 너무 잘되어 있어서, 매끼 정말 잘 챙겨먹어 10kg나 증량해서 돌아오게 된 점은 조금 아쉽지만..ㅎㅎ 끼니 걱정을 할 일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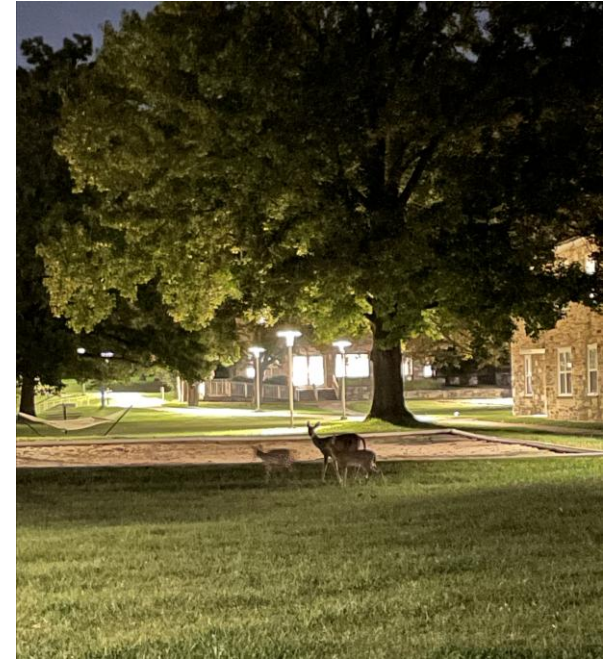
Campus life of GC- 강의실과 도서관



강의실은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보통 총 인원이 20명 정도 됐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의자와 작은 책상이 붙어있는 구조의 책걸상을 사용합니다. 책상이 작아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보통 노트북을 사용해서 빨리 적응했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정말 좋았는데, 출력도 대략 200장 정도 무료로 할 수 있었고, 도서관 내 간단한 유산소 기구가 비치되어 있어 공부 중 헬스장까지 가기 귀찮거나 헬스장 운영 시간이 끝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Campus life of GC- 교내 작은 숲길



GC는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학교입니다. 밤에 산책을 하다 보면 사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었고, 토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캠퍼스가 외부랑 어느정도 단절되어 있는 구조라 치안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고 새벽에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았고,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이곳저곳 캠퍼스 내에서만 돌아다녀도 상쾌해지는 기분이라 정말 힐링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며

저는 25년 8/17부터 시작하여 12/30까지, 약 4개월 반 동안의 미국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각종 행사와 작은 파티들, 그리고 ISEP을 통해 유럽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의 여행 하나하나가 정말 즐겁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우버를 타고 떠난 DC, Philadelphia, 국내선을 타고 다녀온 Miami, Chicago 여행도, 12/21 학기가 끝난 후엔 친척분을 만나러 홀로 떠난 Texas 여행도. 이후 친구들과 뉴욕에서 보낸 크리스마스와, 보스턴에서의 혼자만의 여행시간도 절대 잊지 못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더 다양한 곳을, 보다 나은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미국으로의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과 미국으로의 유학, 취업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깊은 고민 없이 교환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ㅎㅎ

물론 타지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설레지만은 않습니다. 설렘 뒤엔 외로움과 좌절이 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만큼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립대는 각종 교환학생 장학과 등록금의 측면에서 교환학생 메리트가 정말 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다녀온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너무 힘들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걱정보단 설렘을 안고 도전하시길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보자료엔 많은 것을 담진 못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과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skyjane04@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